

차별금지법 강력반대, 국가보안법 존속해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단체장 임원 초청 6·25 상기 세미나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대표회장 최승균 목사, 이하 도민연합)이 7일 라미돌리조트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단체장 임원 초청 제71주년 6.25 상기 특별강연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도 지역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주요 종교를 포함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도민연합은 이날 세미나에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국가보안법이 존속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인사말을 전한 최승균 목사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치관을 훼손하고, 여성들의 안전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파괴적인 차별금지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차별금지법의 악한 실체를 깨닫게 될 때까지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으로 구원하리까"라는 제목의 설교말씀을 전한 권태진 목사(선 한교연 대표회장)는 "대한민국의 영적 전진을 위해 전략이 있어야 한다. 잠자는 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함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도자는 하나님께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혼수사와 기도문과 같은 한국교회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기독교 지도자를 세웠으면 흔들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내리도록 없도록 한 것처럼 세운 지도자가 일할 수 있도록 믿고 따라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동성애 등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연합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강연회에서는 이기도 목사(부기총 총회장)가 대표기도하고, 임종근 목사(안기연 대표회장)와 심언용 목사(회



기총 사무총장), 장한목 목사(안기총 대표회장)가 한국교회 예배 정상화 회복을 위해, 차별금지 약법과 가정해체법 폐기와 목회자들의 적극 대처를 위해, 대한민국과 국방-보안법 사수를 위해 특별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재동 목사가 '보안법이 존속해야 될 이유', 김원평 교수가 '평등법 차별금지법 저지 및 강력한 대처방안', 고영일 변호사가 '차별금지법 가정해체법 대처 방안과 보안법은 왜 존속해야 되는가', 홍천수(대불총 호국순군단장)이 '평등법에 대한 불교인으로서의 입장', 이계성 대표가 '차별금지법 주장 사제 천주교 마귀종교 만들어'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불교인의 입장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힌 홍천수님은 "불교 경전 불설우바세 5계 상경에 부처님께서 동성애는 사탄 음행의 대상이라며 철회할 수 없는 죄라고 가르치셨다"면서 "그 대상도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포함한 매우 엄중함을 가르치고 있고, 사람간의 동성애뿐 아니라 짐승과의 음행도 동일한 죄로 말씀했다"고 말했다.

특히 "남성 간에 2곳 음행을 하면 철회할 수 없는 죄라고 명확하게 말씀했다"며 "불교도이든 누구든

의심없이 동성애 추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민연합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이다.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역차별이라는 또 다른 차별을 낳고, 특권층을 장악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안에 남녀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현재 남녀 성별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해당 법을 악용해 병역 기피 수단으로도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명목으로 스스로 여성으로 생각하는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출입하거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가 가능해진다는 점은 차별금지법의 최대 피해자가 여성이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며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피해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박 목사는 "한국과 비슷한 차별금지법을 입법해도 입법 시행 중인 해외의 사례들을 통해 대한민국은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한다. 한국교회 전체가 나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데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기독교인,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준다 80%

한국갤럽의 2021년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최근 한국갤럽에서 전국의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은 '종교가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80%가 답했다고 한다. 반면 불교인은 59%, 천주교인은 65%만이 동의했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비종교인은 18%에 불과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1984년, 1989년, 2004년, 2014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지난 9월 18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종교의 사회적 기여' '개인 생활 속 종교의 중요성' '초자연적 개념 존재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설문했다.

전체적으로는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과거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54%, 감소했다가 28%, 증가했다는 것은 18%를 차지했다. '종교가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는 2014년 63%에서 2021년 38%로 낮게 변화되었다. 또 '개인 생활에 종교가 중요하냐'는 질문에는 전체 38%만이 찬성했는데, 이는 1984년의 68%에 비하면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종교별로는 기독교인은 90%, 불교인은 62%, 천주교인은 85%가 종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비종교인은 11%에 불과했다.

이를 다시 연령대별로 보면, 19-20대는 25%, 30대는 32%, 40대는 34%, 50대는 38%, 그리고 60대 이상에

서는 50%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종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업주부가 47%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이 44%로 다음이며, 기능·노무·서비스와 사무·관리각각 35%, 무직·은퇴·기타가 34%였으며, 학생층은 27%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서울이 43%, 인천·경기·전라·광주가 각각 36%를 차지했으며, 부산·울산·경남은 34%, 대전·충청·세종은 30%였다.

'초월적 존재를 믿느냐'(천국·극락, 사후 영혼, 신·절대자, 악마·귀신)는 질문에는 기독교인은 80%, 불교인 72%, 천주교인 82%가 믿는다고 했다. 그러나 악마의 존재에 관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71%를 믿는 반면에 천주교인은 57%만이 믿는다고 했다. 또 불교인은 56%였다.

이번 한국갤럽의 종교인식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몇 가지 고려·참고할 것이 있다. 첫째는 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인들의 각 종교에 대하여 시대·상황적으로 호감과 비호감이 교차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하여 무심해지고 있다고 보인다. 사람들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절대자와 영적인 것들을 외면하게 된다.

두 번째는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에 종교인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종교를 믿고 사회적 역할과 영

향력에 기대를 하지만, 비종교인들은 전반적으로 종교의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여겨진다.

세 번째는 이 조사의 표본 집단이 종교인구 비율과 맞지 않는다. 이 조사에서 종교인 598명과 비종교인 902명을 표본으로 삼았는데, 종교인을 39.9%만 참여시킨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0년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 한 것에 의하면, 종교인이 48%, 비종교인이 52%를 차지한다. 표본 집단에서 종교인의 비율을 8%포인트 이상 낮게 설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종교인식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이 떨어졌다고 본다.

이번 조사의 결과만을 두고, 일회일비할 수는 없으나, 각 종교는 일반인에 대한 종교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가치와 능력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라, 사회적 희생과 봉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영적·신앙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 주요 종교별로 살펴볼 때에도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선행성이 돋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함께 온 결과이다. 그러나 더 높은 영적 만족도를 높이고, 개인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신간안내

남국 유다



이 책은 한국교회들이 잊고 있는 정경한 목회자들을 배출한 탁월한 목자, 박희천 목사가 1대 르호보암으로부터 20대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남국 유다를 통치했던 왕들의 역사가 보여주는 영적 교훈에 초점을 맞춰 집필한 것으로,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성경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책이다. 성경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온전히 '성경을 성경대로' 풀고 설명하는 분으로 유명하다. 평생에 걸쳐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4시간씩은 꼭 성경을 읽으며 현재 한국교회에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른 성경 해석의 틀을 제시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저자의 탄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책이기에 더욱 귀하고 소중한다.

저자 : 박희천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21-06-05 | (150*225)mm 640p | 판매가 : 30,000원

기독교를 생각하다 (Christianity Considered)



기독교를 잘 모른다면 서구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기독교는 서구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했고, 서구 문화에서의 종교, 예술, 철학, 과학, 경제, 정치학 등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거나 기독교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서구 문화의 영향 아래 있는 이들이 기독교의 교리, 경건, 윤리, 역사,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 등을 잘 이해해야 한다. 어떤 사회적 현상을 진지하게 연구하려면 그 현상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 생각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요청한다. 또한 왜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저자/역자 : 존 프레이밍/김효남 | 출판사 : 좋은씨앗

발행일 : 2021-06-25 | (125*185)mm 248p | 판매가 : 13,000원

삶의 길을 적용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포도나무의 비유,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 등 많은 예화나 비유를 사용하셨다. 사람들은 개념적인 원리보다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예화를 잘 사용하면 설교의 지루함을 덜어주게 되고 청중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화는 강이나 대화에 있어서도 전하려는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해준다. 예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옥토와 같이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는 복된 마음이 되시길 소망한다. 감동적인 한편의 예화가 말씀을 오래 기억하게 하는 조미료와 같다고 말씀하신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선택한 예화들이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원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의 분이 열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계신다.

저자 : 황주영 | 출판사 : 크리스천리더

발행일 : 2021-06-10 | 신국판 180p | 판매가 : 10,000원

주의 사자가 앞서 인도하신다 (A Cloud by Day, a Fire by Night)



이 책은 토지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시카고의 교회로 보냄을 받기 전, 그리고 시카고에서 30년 사역 후 다시 토론토의 교회로 가기 전에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본문을 설교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그 자신 또한 알지 못하는 길로 가기 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예언적이고 선언적인 메시지였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자를 따르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치라야 할 싸움이 있는데, 도망쳐서 계속 광야에서 방랑할 것인지 또는 싸워 이겨서 그 땅과 원수의 소유까지 취할 것인지는 주의 사자, 즉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 달렸다.

저자/역자 : A. W. 토저/이옥봉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21-04-22 | (135*203)mm 216p | 판매가 : 12,000원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려는 사상이 의학을 지배하게 만드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제2차 전문인(한의학·약사·간호사) 생명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 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은 모두 동성애, 양성애 등성적지향과 성전환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신 또는 출산'도 차별금지사유에 들어 있고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유인 '등'도 있기 때문에 '낙태'도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상기 차별금지사유들을 이유로 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차별'의 범위에 포함된 등 소위 혐오표현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40년 동안 소아과 간호사로 근무한 미국인 샌드라 로 자스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돕는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았다. 그런데, 일리노이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입법된 후, 2015년에 보건부에 소속된 모든 간호사들에게 여성을 낙태 시술사로 안내하고, 낙태약을 인도하도록 도우주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받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샌드라는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었고, 결국 해고되었다.

2021. 6. 9.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하는 제2차 전문인(한의학, 간호사 및 약사 25000여 명) 일동

목양포커스

송대섭 목사 //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기독교 전학이념 훼손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 즉시 시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전학이념으로 설립된 대학의 체질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려 해당 대학에 대체과목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학생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거꾸로 기독교 전학이념으로 설립된 종합대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이다.

인권위는 이 대학의 체질 수업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봉독 등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특정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다'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사립 종합대학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전학이념을 교육과정 통해 폭넓게 실현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교교육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권위의 판단은 이 대학의 체질 수업이 비신앙인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

또한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교교육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강요했다고 본 것도 사실과 다른 매우 편향적인 판단이다. 대학의 경우 선택권이 없는 중등교육과는 달리 자의의사로 선택한다. 따라서 전학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자기가 선택한 대학에서 상당한 정도의 종교교육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학생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대학 구조상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중에서도 30% 이상이 종합대학이라는 현실을 들어 종합대학의 입학이 학생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로 보긴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는 또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국가가 해당 분야의 국공립대학을 늘려

사립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공적 책무는 다하지 않고, 종합대학의 자율성마저 국가 마음대로 통제하려 한다면 기독교 전학이념으로 세워진 이 땅의 기독교 사학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번 국가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한국교회는 전학이념에 따른 종합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결정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또한 지난 1993년 숭실대의 체질 수업을 졸업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인 '체질 수업 의무 규정'에 대해 송대섭 교수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해 해당 대학에 대한 잘못된 권고를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